

“내 죽음은 전생 업보...더 이상 윤회 없네”

② 신동제일 목건련 目健連

〈하〉전법과 열반

신동제일 목건련은 전형적 행동형 수행승이었다. 그는 천상과 지상을 오가며 많은 이들에게 불법을 알리고, 승가를 수호하며 교단을 정비하는 등의 역할을 해낸다. 이 과정에서 그의 신동력은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고 불교는 많은 중생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호법 신장으로 교단 정비

녹자도 강당 포살 현장에서 목건련은 청정하지 못한 대중을 골라내 호법신장의 역할을 한다.

동원림 녹자도 강당에서 포살을 할 때 부처님께서는 동참한 비구들의 마음을 살펴보니 계행이 청정하지 못한 이가 있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앉아 있는 가운데 계목을 설한다면 이 사람은 일주일 후에 머리가 깨질 것이 분명했다. 밤이 되어 초경이 될 때까지도 부처님은 계목을 설할 것을 허하지 않았다. 시자였던 아난존자가 나섰다. “비구들이 계목을 암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부처님은 계속 침묵하셨다. 아무리 지나도 부처님의 침묵은 계속 되었다. 아난존자가 세 번째 청을 올리자 결국 부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셨다. “회중이 청정하지 않다”

이 말씀 한 마디에 목건련은 그의 신동력으로 승가 구성원들의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승가 가운데 계를 지키지 않고, 나쁜 성품을 지니고, 불결하고,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고, 비밀리에 행하고,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고 주장하고, 청정법행을 닦지 않으면서 청정법행을 닦는다고 주장하고, 썩은 업에 의해 안이 썩었고,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탐욕의 마음이 흐르고, 청정하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일어나서 나가줄 것을 요청했다. “도반이여, 일어나시오. 부처님께서 그대를 보았습니다. 그대는 비구들과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침묵하고 있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요구에도 그 사람은 꿈쩍하지 않고 침묵하고만 있었다. 목건련은 결국 그 사람의 팔을 붙잡아 바깥으로 끌어내고 문 빗장을 잠금버렸다. 그리고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부처님, 제가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이제 회중은 청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계목 암송을 허락해주시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서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제 그대들이 포살을 준수하고 계목을 암송하라. 오늘부터 나는 계목을 암송하지 않을 것이다. 여래가 청정하지 못한 회중에서 계목을 암송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치에 맞지 않다”

그리고 이어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법과 율에 대해 비유의 법을 설하신다. “큰 바다는 점차 기울어지고 점차 이탈되고 점차 경사지자, 갑작스럽게 절벽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큰 바다의 첫 번째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아수라들은 큰 바다를 기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법과 율에는 순차적인 공부지움과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도 닦음이 있다. 갑작스럽게 완전한 지혜를 깨달음이 없는 이것이 이 법과 율의 첫 번째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천상에서의 전법

부처님은 상황에 따라 초월적 능력으로 먼 거리에서 제자들을 도왔다. 목건련 역시 부처님의 신동을 통해 수행의 난관을 극복하기도 했다. 〈쌍둥이가야〉 목건련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가 명상 중에 아직 제거되지 않는 미세한 번뇌를 제거하지 못하고 전전공공하고 있을 때 부처님이 나타나셨다고 한다. 부처님은 신동의 힘을 통해 지혜 곧 바른 앎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한다.

“목건련이여! 첫 번째 선정을 게을리 하지 말라.

“부처님은 세상의 존귀한 님

불법은 삶에 유익한 가르침

승단은 가장 훌륭한 복밭”

이교도에 전법...이교도가 살해

첫 번째 선정을 마음에 확립하라. 첫 번째 선정에 마음을 통일하라. 첫 번째 선정에 마음을 집중하라” 목건련은 부처님의 도움으로 선정에 들어 ▶무한의식의 세계 ▶아무 것도 없는 세계의 마음 확립 ▶지각하는 것도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 ▶인상을 여의는 마음의 삼매에 도달했다. 목건련은 이제 이렇게 말한다. “저는 스승의 도움으로 광대한 초월적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 목건련은 천상세계를 방문해 신들에게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그 참 모임에 귀의할 것을 설한다. 한 때 목건련은 썩바티 시의 제파 숲에 있는 아나타펜디가 승원에 있었다. 그때 팔을 굽혔다 펴는 잠깐 사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신들의 제왕 제석전은 오백 명의 천상인들과 함께 목건련을 맞았다. 목건련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한다.

“신들의 제왕이여,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 부처님의 참 모임에 귀의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이는 이 세상의 못살들은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목건련은 부처님에 대한 귀의를 이렇게 표현한다. “신들의 제왕이여, 부처님은 참으로 거룩한 님,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세상을 아는 님, 위엄이 높으신 님, 사람을 길들이는 님, 하늘사람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 깨달은 님, 세상의 존귀한 님입니다”



그림 · 김홍인

이어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세상의 존귀한 님께서 잘 설하신 가르침은 현세의 삶에서 유익한 가르침이며 시간을 초월한 가르침이며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가르침이며 시간을 초월한 가르침이며, 최상의 목표로 이끄는 가르침이며, 슬기로운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어 그는 승가의 귀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훌륭하고 정직하게 현명하게 실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의 참모임은 공양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고 선물 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세상에 가장 훌륭한 복밭입니다”

열반, 교단 최초의 순교자

신동력으로 여러 세계를 방문한 목건련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은 좋은 세상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이교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악처에 태어난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의 이런 믿음은 전범으로 이어졌고 많은 이교도들이 불교에 귀의하게 되고 이교도의 신도수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 중 육사외도의 한 사람이며 자이나교의 창시자인 니간타 문하의 고행자들이 목건련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니간타 고행자들은 라자카하 근처 잘라살라 마을에 거주하는 자객들을 매수하여 목건련의 살해를 사주했다. 자객들은 목건련이 머무는 수

도원을 포위하고 두 번이나 살해를 시도하였으나 신동력으로 이를 막아낸다. 하지만 끝내 그도 그들의 압박을 당해내지 못했고 심한 폭행을 당해 뼈가 부러지고 살이 너털너털해질 정도의 폭력을 당하게 된다.

목건련이 누구인가? 수미산을 강낭콩처럼 으깨버릴 수 있고, 지구를 손가락으로 뚫자리처럼 돌돌 감을 수도 있고, 지구를 웅기장이의 물레바퀴처럼 돌릴 수도 있는 신동제일 아니던가? 오만한 제석천에게 무상함을 일깨워주고자 신동력으로 공전을 흔들 어대기도 했던 그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이교도에 게 살해를 당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죽음을 앞둔 목건련은 죽마고우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모든 게 내 전생에 지은 과보 때문이네. 전생에 부모님에게 몹쓸 짓을 했기 때문이야. 모든 게 내 가 지은 죄의 결과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게”

전생에 그는 아내의 잘못된 말을 듣고 눈먼 부모를 수레에 태워 숲속으로 데리고 가 몽둥이로 때려 죽인다. 이 악업으로 그는 무수한 세월동안 무간지옥에서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깊이 참회해 전생부터 여러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을 했지만 그 악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하여 태어날 때마다 처참한 죽음을 당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죽음으로 더 이상 과거의 업장에 갇달리지 않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죽음을 조용히 받아들였고 최초의 순교

자가 된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뜻이기도 했다. 부처님은 무수한 신동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합부로 신동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카족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목건련이 신동력을 써서라도 사카국을 지키고자 제안했지만 부처님은 이를 거부하셨다. “사카국 사람들이 쌓은 업의 과보를 누가 대신 받을 수 있단 말이나”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아무리 훌륭한 신동력이라도 업으로 인한 과보는 지울 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잡아함경〉 포살경에는 사리불과 목건련, 두 제자를 잃은 부처님의 이런 말씀이 전해진다. “내가 대중을 관찰해보니 텅 빈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것은 사리불과 목건련이 열반하였기 때문이다. 나의 성문(聲門)들 중에 오직 이 두 사람만이 능히 잘 설법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변설(辨說)하기를 만족스럽게 행했다. 재물에는 돈재물과 법재물 두 가지가 있다. 돈 재물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했었고 법재물은 사리불과 목건련으로부터 구했었지만, 여래는 이미 세간의 재물과 법의 재물에서 떠났구나. 그렇다고 너희들은 사리불과 목건련이 떠났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말라”

이러 부처님은 두 사람의 죽음을 나무에 빗대어 설하신다. “비유하면 큰 나무의 뿌리·줄기·가지·잎·꽃·열매가 무성한 데서 큰 가지가 먼저 부러지는 것과 같고, 보배산에서 큰 바위가 먼저 무너지는 것처럼, 여래의 대중 가운데서 사리불과 목건련이라는 두 대성문(大聲聞)이 먼저 열반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생긴 법·일어난 법·지어진 법·만든 법·무너지는 법으로서 어떻게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이 있겠는가? 아무리 무너지지 않게 하려 하여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느니라. 이제 자기(自)를 섬으로 삼아 자기를 의지하고, 법(法)을 섬으로 삼아 법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섬으로 삼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상수 제자 둘을 잃은 부처님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춘다의 공양을 받고 식중독으로 열반에 이르시게 된다. 부처님은 신동력으로 독을 앓아내고 소화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죄의식을 가질 춘다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춘다여, 그대는 지금부터 응당 그대의 마지막 보시 공덕을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리어 듣는 이로 하여금 오로랫동안 안락을 얻게 하라”

결국 부처가 된다는 것은 불치병을 신동력으로 치유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비록 병에 걸려 죽음을 맞더라도 그것에 사로잡혀서 갈등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죽음과 병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은 죽음을 고통 없이 맞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고통을 받아들임으로써 중생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다. 목건련 역시 최선을 다해 부처님의 제자로 살았고 부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봉 호국불교조계종 우란분재(백중절) 49재 영가천도 행

부모형제 영가천도를 보시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아래 각 사찰로 동참하시어 조상이 편안하면 나라와 가정이 태평성대하여 소원성취하옵니다
회향 : 1년에 한번 하늘이 열리는 음력 7월 15일 회향합니다

- 총 정 운송 (양산 상북면 청운사)
- 중앙원로위원장 대응 (부산 진구 당감 봉주암)
- 중앙원로 의원 무진 (경주 황용 용수암)
- 중앙원로 의원 일파 (경북 청도 부야 삼화사)
- 중앙비구니회장 혜명 범우(부산 진구 부암 백광사)
- 중앙문화위원장 소현 무향 (천수바라루, 살풀이)
- 선거관리위원장 관우 (대구 약사사)
- 총 무 국 장 관음 총 무 과 장 청곡

- 이 사 장 해운 (진주 봉래동 봉광사) (이사진)
- 중앙총회의원 범주 (양산 중부 몽불사)
- 수경 (김해 진영 백련암)
- 진우, 진여, 진설, 혜덕, 법광
- 총 무 부 장 정무 도일 (부산 해운대 재승 청운암)
- 규 정 부 장 수연 범승 (부산 금정 부곡 천왕사)
- 재 무 부 장 묘향 (부산 수영구 망미 반야라미)
- 감 찰 부 장 서암 (부산 민덕 약수사)

- 총 무 원 장 유심 성도 (부산역 관음정사)
- 중앙총회의장 일봉 (경주 강동 안계 관음사)
- 포 교 원 장 운암 (의령 봉수 문황사)
- 교 육 원 장 법기 (양산 원동 백림사)
- 감 사 원 장 청수 (양산 상북 청수사)
- 부산총무원장 범중 (부산 금정구 장전 법전사)
- 대구총무원장 의광 지현 (대구 서구 평리 약사사)
- 사천총무원장 무무 현수 (사천 향촌 연지암)

전국종도님, 재가법사 임종을 보살행으로 환영합니다.

종교승가 護國佛教 曹溪宗 website : bbnr.or.kr

총 본 산 : 경남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산 36번지 청운사 총 무 원 : 부산 동구 초량2동 207-10번지 부산역 앞 / 관음정사 051)468-5657 팩스 051)442-5659
교 육 원 : 양산 원동 백림사, (사)대한불부도 수련원장 : 수연 051)516-4494, (사)보성노인대학학장 : 진공 051)465-3697
부설단체 : 051)442-5658 부산대학병원신신맞기기중모임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임종업체 : 신라불교미술관 무상 051)808-1273. 불교음향기기 특수제작 수봉전자 수봉 051)803-0426